

제 17장 마틴 Taylor on Interpretation and the Sciences of Man 행정대학원 2003- 22870 김정신

1. 해석적 사회 과학의 범위 1) 테일러: 사회적 제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사회 과학의 유일한 또는 주된 목표”(이하 마틴의 독해) 2) 마틴: 해석의 중요성을 과장. 사회 과학자들은 의미 해석에 더하여 설명에도 관심. 예) 월경 터부. 기존 인류학: 월경 중의 피와 여성은 더럽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람들이 이를 피하게 됨. vs 파워즈: 서구 학자들이 편견을 갖고서 비서구 문화를 관찰했기 때문에 부정적 견해 형성. 월경 터부의 기능은 반구조(antistructure)에 구조 부여. 파워즈는 부족 사회에서 월경 터부가 갖는 의미 + 터부의 기능을 모두 밝힘. 테일러는 앞의 것만 다룸. 예) 사회 과학의 범위를 해석에만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서구와 비서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 여성에게 월경 터부가 갖는 심리적 효과, 월경 터부가 생긴 기원 등의 다채로운 질문이 가능. 결국, 사회 관습을 해석하는 것은 사회 과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라는 정도의 평가가 가능. 3) 쟁점: 인류학자들은 이해에 인과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 ~~(~~이해에 인과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

2. 인과성과 의미 해석 1) 테일러: 인과성은 중요하지 않고, 해석은 인과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2) 마틴: 자연 과학도 개념에서 인과성을 전제한 경우 많음. 예) 심장학에 관한 개념들은 관련 인과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 전제. 사회 과학도 마찬가지. 예) 인과적 관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굴욕적인 상황, 부끄러움의 느낌, 그리고 행동 경향 등에 대한 개념적 관계를 이해할 수 없음. 테일러도 인과성을 고려하는 듯. 예) 굴욕적 상황 하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어디론가 숨고자하는 행동 경향이 생김. 3) 쟁점: 심장학, 부끄러움의 예들은 이해의 훌륭한 예이지 않은가.

3. 객관적인 입증과 해석학적 순환 1) 테일러: 사회 과학은 해석학적 순환¹⁾에만 의지하여 입증할 수 있을 뿐. 특정 해석을 배타적으로 입증하는 객관적 방법 없음. 해석은 궁극적으로 직관과 가치 결정들에 기반. vs 자연 과학에는 중립적인 관찰 기초(brute data)가 있음. 2) 마틴: (1) 자연 과학의 순환성: 자연 과학에도 이론 입각의 성질 있음 ① 이론의 범주 영향²⁾ ② 이론의 전제 영향³⁾ (2) 자연 과학의 객관적 입증 방법: 경험적 관찰을 통하여 이론을 제한·견제. 예) 흉역 환자 판정: 흉역의 속성과 증상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관찰을 통하여 알아볼 것. 관찰이 현재 검증되지 않는 이론에 입각할수록 + 독립적이고 다양한 증거들이 하나로 수렴할수록, 현재 검증 중인 이론을 제한할 수 있게 됨. (3) 해석의 객관적 입증 방법: ① 해석의 반증 가능성 ② 통계적 설명. 3) 쟁점: 통계적 설명은 일종의 예측일 뿐. 상관 관계가 높다는 것이 특정 해석이 옳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4. 비주관적 의미⁴⁾ 1) 테일러: (1) 경험주의자들은 개인 수준의 심리적 반응들에만 의존하므로 개인에 외재하나 사회에 내재하는 비주관적 의미를 잘 보지 못함. (2) 비주관적 의미는 언제나 구성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3) 이원론 = 존재론적 객관주의⁵⁾ + 인식론적 주관주의⁶⁾ 2) 마틴: (2)' 인정 못함. 사회 행위자들이 자신의 관습 P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존재 자체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기 때문. (3)' 이런 입장 어색. 3) 쟁점: (2)' 구성원들이 알아채지 못해도 의미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5. 정확한 예측의 불가능함 1) 테일러: ∴ (1) 개방 체계. (2) 인간 과학에서는 자료 측정에 있어서 자연 과학만큼의 정확성 갖추기 힘들. (3) 인간은 “스스로 정의하는 동물”. 정의가 변하면 인간이 변해, 각기 다른 용어들로 이해되어야. 인간은 각기 특정한 시공에서 비교 불가능한 개념들을 구성해왔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개념들로 일반화를 하고 이에 기반 두어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2) 마틴: (1)' 개방 체계인 것은 자연 과학도 마찬가지. (2)' 어느 자연 과학이든지 어느 사회 과학보다 좀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 정확성의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이론들에 달려 있음. 게다가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강도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개념이 변하더라도, ① 개념 변화의 범위가 같으면, 예측 가능. ② 개념의 범위도 변한 경우, 변화된 범위들이 일정한 관계로 남아 있으면, 예측 가능. 3) 쟁점: (2)' 테일러는 전반적으로 사회 과학이 자연 과학에 비해 정확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 아닌가. 또한 현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1) 논리 1) 정치 과정의 특성 A1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성인 A2에 의지해야. 그런데 A2에 대한 이해는 다시 A1에 달려 있음. 논리 2) 문화 전체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함. 그런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부분을 이해해야 함.
- 2) 관찰자는 자신이 입각하고 있는 이론에 존재하는 개념들로 나누어 현상을 인식. 현상이 나뉘는 범주들만을 결정.
- 3) 관찰자가 자신이 입각하고 있는 이론의 전제들에 구속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력은 너무 커서, 관찰이 이론을 검증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독립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을 것임.
- 4) 비주관적 의미 = 간주관적 의미(사회적 관습을 구성) + 공통 의미(공유된 가치를 제공)
- 5) 비주관적 의미는 사회 세계의 객관적인 구조(fabric)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
- 6)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지식 획득을 부정하므로.

개념의 범주
A1, A2, A3, A4, A5
객관적, 해석
4/28/2023